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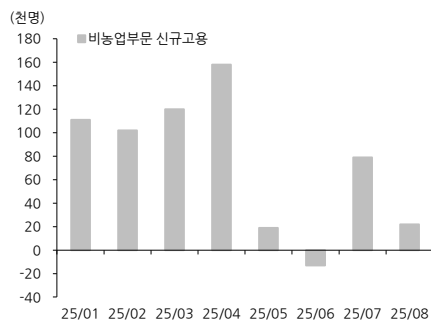
Macro Review

8월 미국 고용: 쉽지 않은 취업

▶ Economist 최규호 choi.gh@hanwha.com 02-3772-7720

[주요 데이터 및 차트]

8월 비농업부문 신규고용 2.2만 명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취업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인구 전월대비 증가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미국 고용은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서비스 고용이 둔화됐고 정부 고용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고용 둔화가 이어지겠지만, 구직에 나서는 인구가 유지되고 있어 고용 침체를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비농업부문 고용 예상치 하회

8월 미국 비농업부문 고용은 전월대비 2.2만 명 증가하며 예상치 하회. 의료서비스(+4.7만 명)와 운수창고(+3.6만 명) 고용 둔화. 연방정부와 주정부 고용 감소 폭 확대되며 정부(-1.6만 명) 고용도 3개월 만에 감소 전환. 다만 여가/숙박(+2.8만 명) 고용은 비교적 양호

실업률은 4.3%로 전월대비 0.1%p 상승, 경제활동참가율도 62.3%로 0.1%p 상승. 파트타임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어난 가운데, 영구 및 장기(27주 이상) 실업자도 증가

시간당 평균임금은 전월대비 0.3%(전년동월대비 3.7%) 상승. 유틸리티(+1.2%)와 운수창고(+0.6%) 등 일부 서비스업과 건설업(+0.6%) 임금 상승 압력 확대

점진적으로 약해지는 고용

한동안 고용 둔화 이어질 전망. 평균 실업기간(24.5주)이 3개월 연속 증가했고, 광의의 실업률(U-6: 구직단념자와 경제적 이유에 따른 파트타임 근로자 포함)도 8.1%로 올해 가장 높은 수준. 또한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업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풀타임 취업자수는 올해 가장 적음. 구인수요가 점차 약해지고 있는 상황

다만 고용 침체를 우려할 정도는 아닌. 취업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는 2021년 7월 이후 가장 많고, 노동시장 재진입 인구도 늘고 있음. 구인수요가 줄어 취업이 어려워졌지만, 구직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체감상 노동시장이 침체 수준은 아니라는 의미. 파트타임이나마 구직자 일부는 취업했고, 기업들의 해고도 대규모로 늘진 않았음

기업들의 보수적인 고용정책을 고려하면, 신규고용은 앞으로도 크게 늘기 어려울 전망. 다만 구직자들이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실업률이 급등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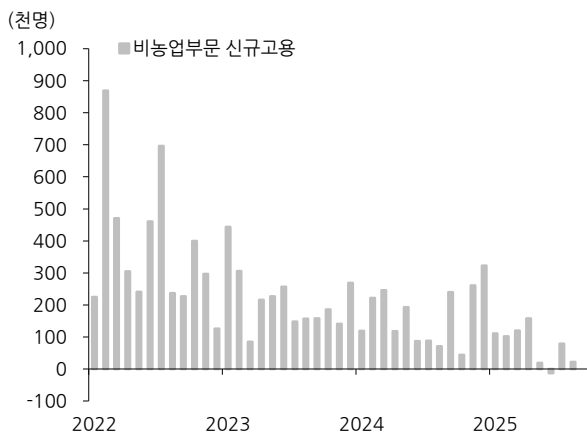
[표1] 미국 고용보고서 요약

(천명, %)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비농업 신규고용	44	261	323	111	102	120	158	19	-13	79	22(▽)
민간	-1	244	287	79	107	114	133	69	-27	77	38(▽)
상품	-50	28	4	-11	24	5	2	-13	-21	-8	-25(▽)
서비스	49	216	283	90	83	109	131	82	-6	85	63(▽)
정부	45	17	36	32	-5	6	25	-50	14	2	-16(▽)
실업률	4.1	4.2	4.1	4.0	4.1	4.2	4.2	4.2	4.1	4.2	4.3(△)
경제활동참가율	62.5	62.5	62.5	62.6	62.4	62.5	62.6	62.4	62.3	62.2	62.3(△)
고용률	60.0	59.8	60.0	60.1	59.9	59.9	60.0	59.7	59.7	59.6	59.6(-)
시간당 평균임금	4.1	4.2	4.0	3.9	3.9	3.9	3.8	3.8	3.7	3.9	3.7(▽)
제조업	4.6	4.4	4.0	4.2	4.4	4.7	4.4	4.3	3.9	3.9	3.9(-)
서비스업	4.0	4.1	3.9	3.9	3.9	3.8	3.8	3.8	3.7	3.8	3.6(▽)

주: 시간당 평균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이전치 대비 상승(△), 하락(▽), 보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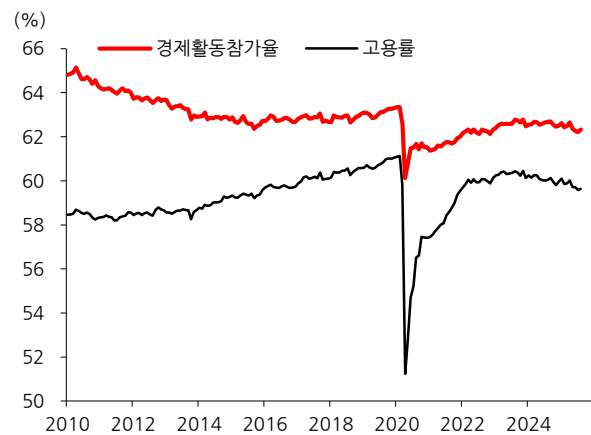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 비농업부문 신규고용 2.2 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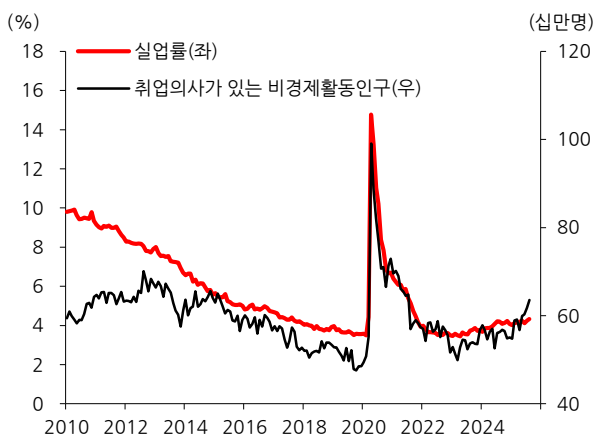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경제활동참가율 전월대비 0.1%p 상승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실업률 전월대비 0.1%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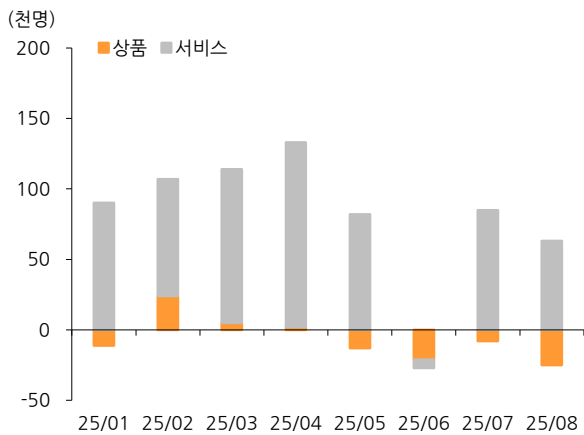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임금 상승 압력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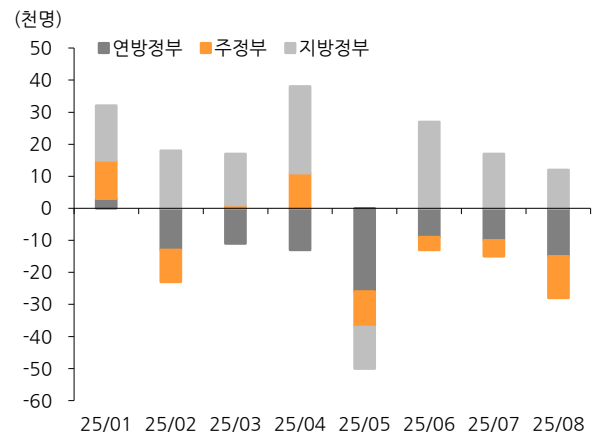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민간: 상품 관련 고용 4 개월 연속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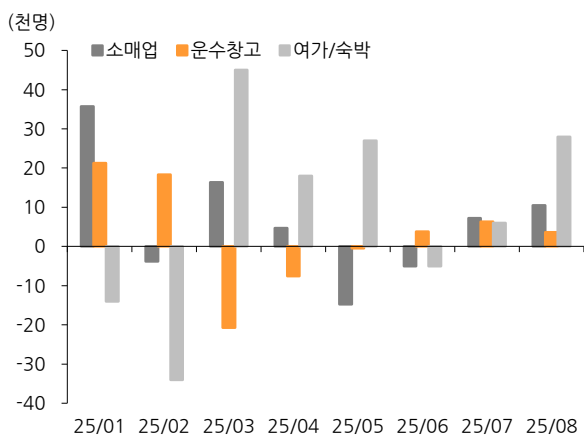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정부: 연방정부와 주정부 중심으로 고용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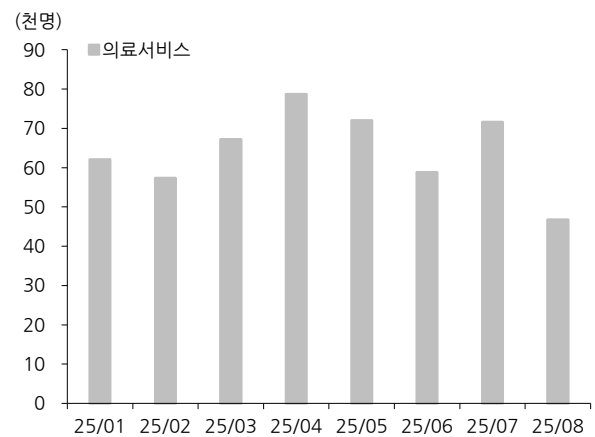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여가/숙박 신규고용은 비교적 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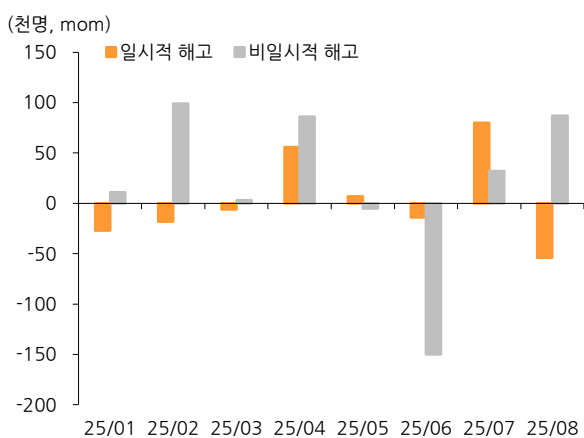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의료서비스 고용 증가 폭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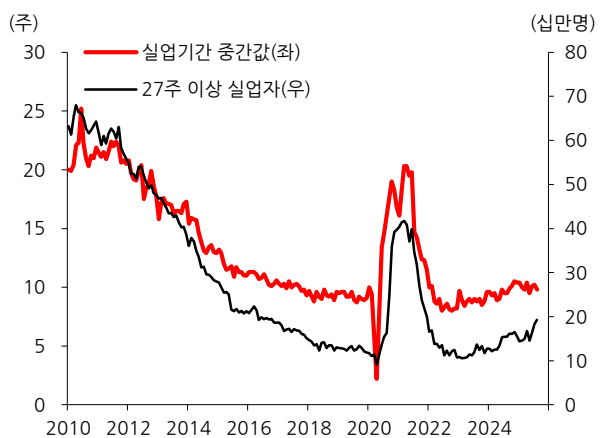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비일시적 해고 늘어나는 가운데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장기 실업자도 3 개월 연속 증가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